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양영석 안세영 최보영†
제주대학교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학생 59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공격성을 조사하였고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변인 간 경로의 의의와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관계에서 공격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공격성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제주대학교,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E-mail: bychoi@jejunu.ac.kr

서론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디지털미디어의 발달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 그룹채팅방, 카카오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장(조윤호, 2013a)으로 사회관계망을 다루는 SNS 서비스가 확산 되면서 이전에 불가능했던 방대한 분량의 정보 검색,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동호회 활동, 온라인 교육 등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가능하게 되었다(이주형, 안순철, 2013). 이렇게 사이버 공간은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개성과 생각에 대한 자유로운 표출, 새로운 정보의 습득, 다양한 세계에 대한 경험, 능동적인 사회적 참여 등의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지나친 가상세계의 몰입은 현실세계에서의 관계의 단절,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통한 사이버 폭력이나 사이버불링 등 다양한 역기능적 문제도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의 좌절된 불안한 심리를 학교나 학원친구들에게 투영하면서 학교폭력의 가해로 나타나기도 하며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사이버 왕따, 사이버 괴롭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심한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오세연, 곽영길, 2013).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부정적 피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6년 미국에서 발생한 메간 마이어(Megan Meier)사건은 미국의 중년여성이 자신의 딸의 복수를 위해 10대 남자 소년인 것처럼 가장해 딸의 친구에게 접근하여, 남자친구로 행세하다 들통 나 결국 13세의 마이어가 자살한 사건이다(리승환, 2015). 이 사건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국에서도 14세 한나 스미스가 자신이 만든 소셜네트워크킹 게시판에 올린 위협적이고 가학적인 메시지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었고(BBC, 2014), 캐나다에서도 2012년 Amanda Todd라는 15세 여학생이 유튜브에 자신의 불링 경험을 올린 직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머니투데이, 2012). 이처럼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의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문제가 되었으며, 그 심각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2011년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자살사건(YTN, 2011)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안겼다. 본 사건은 과거 전통적 학교폭력 형태와는 달리 학교내부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학교 밖과 인터넷, 휴대폰 문자와 같은 사이버공간까지 은밀하고 잔인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어왔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통해 사이버불링이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시·공간의 초월하여 얼마나 사회적으로 강력하고 역기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에서 조사한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14.6%가 사이버불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3%, 사이버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집단은 전체의 13.1%로 나타났다. 교육부(2014)의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체 학교폭력 중 사이버불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불링 개념은 아직까지 학자마다 의견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며, 표현되는 용어도 ‘사이버왕따’, ‘사이버괴롭힘’, ‘사이버폭력’, ‘사이버불링’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미디어를 사용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이버불링과 사이버괴롭힘,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들이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곤 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Hinduja와 Patchin(2007)는 일반적으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을 이메일, 문자 메시지, 동영상, 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욕설, 명예훼손, 비방, 위협, 스토킹 등 가해특정행동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욕설과 협박, 괴롭힘 행위(한국정보화진흥원, 2013)들이 발생하는 경우라 정의하고 있으며, 김봉섭, 이원상, 임상수(2013)는 SNS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폭언,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및 거짓 정보 유포행위를 사이버불링으로 정의하였다. 전통적인 학교폭력이 신체적 금품갈취나 폭력, 협박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제력을 과시하며 물리적 고통을 가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사이버불링은 문자 텍스트나 카카오톡 채팅, 블로그 댓글 달기 등을 활용해 24시간 실시간으로 학교 밖 공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은밀하게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특징을 갖고 있다(조운호, 2013a).

사이버불링의 은밀하고 잔인하며 지속적인 특징으로 인해 피해청소년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피해청소년들은 학업스트레스·학업부진, 가출·비행, 약물중독, 우울증, 자살시도 등과 같은 심각한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태곤, 2013; 조운호, 2013a; Juvonen & Gross, 2008; Dehue, Bolman, & Vollink, 2008; Ybarra & Mitchell, 2007).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가 퍼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게 되는 상실감이나 배신감, 분노, 우울감 등의 심리적 문제는 신체적 폭력 피해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Litwiller & Brausch, 2013; Piquero & Sealock, 2000). 따라서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을 밝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불링 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은 크게 환경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적 변인 중 가족 변인으로는 부모관계가 있으며(정여주, 2010), 학교 변인으로는 학교폭력(김은경, 2012; Baren & Li, 2007; Hinduja & Patchin, 2007; Kowalski, 2007), 친구 변인으로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Slonje & Smith, 2008) 등을 꼽을 수 있다. 컴퓨터 활동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의 정보화기기 사용시간, 컴퓨터 사용목적, 익명성, 악성댓글, 채팅(이성식, 김현준, 2009; 이정기, 2011; 전신현, 이성식, 2011; Dowell, Burgess, Cavanaugh, 2009; Slonje & Smith, 2008; Snell & Englander, 2010) 등이 주요 변인들로 연구되었다. 심리적 변인으로는 공격성, 낮은 자존감이나 부정적 자기개념, 정서적 대처 기술의 부족, 스트레스, 낮은 자

기통제력, 우울, 자살생각 등이 있다(성윤숙, 2012b; 정여주, 2010; 이아름, 이윤주, 양현일, 2014; Andreou, 2001; Hinduja & Patchin, 2012; Kowalski, Limber, & Agatston, 2008; Williams, Cheung, & Choi, 2000). 이렇게 다양한 변인들 가운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제시되고 있다(김은경, 2012; Baren & Li, 2007; Hinduja & Patchin, 2007; Kowalski, Limber, 2007).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전통적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Juvonen & Gross, 2008). Khoury-Kassabri(2009)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사이버 공간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이버불링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Mishna, Saini와 Solomon(2009)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행동 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해 피해 행동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행동 청소년들은 피해학생에게 공격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거나 주변 관찰자들이 가해행동에 대해 공감을 표시할 경우 공격행동이 쉽게 강화 되는 경향이 있다(Stueve et al., 2006). 학교폭력 가해행동 청소년들은 학교 공간 내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왕따나 빵셔틀, 금품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가한 후에도 피해자를 조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폭력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조운호, 2013b)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으로는 충동성, 도덕적 죄책감(남상인, 권남희, 2013), 학교만족도, 사이버 자신감(신나민, 안화실, 2013), 학업스트레스(김종길, 2013), 대인관계성향(조아라, 이정윤, 2010), 자기통제력(박예슬, 2016), 폭력용인태도(김경은, 윤희미, 2012), 공격성(김경은, 최은희, 2012; 이아름 외, 2014; Vaughn & Fu, 2010) 등이 밝혀지고 있다. 이 중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 될 수 있지만(고미영, 1998), 발달심리적으로 볼 때 청소년 시기는 갑작스런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부모와의 심리적 의존과 독립 욕구 사이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심적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짜증과 반항, 분노, 그리고 공격적인 언어나 행동이 증폭되어 표출되는 시기이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격성의 원인에 대한 접근은 이론적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공격성을 성적 욕구와 함께 구성되어지는 인간의 기본 본능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공격성을 타나토스(Thanatos)라 하여 에로스(Eros)와 함께 삶과 죽음의 본능에서 죽음의 본능이 표출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공격성은 자아(ego)와 초자아(super-ego)에 의하여 통제된다고 보았다(Kutash, 1978).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공격성은 어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물리적, 언어적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Steinmetz, 1977)설명하며 인지-행동주의 학자인 Dodge와 Coie(1987)는 공격성을 반응적 공격성과 순응적 공격성으로 설명한다. 반응적 공격성이란 앞으로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것을 예상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반응을 말하며 순응적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격성이란 사회적으로 배우게 되는 공격성을 말한다. 이처럼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존재하지만 공격성은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경로로서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반대로 스스로를 자학하여 신경증과 성격장애 같은 정신질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경은, 2012; 김경은, 최은희, 2012; 이아름 외, 2014) 또한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높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악성댓글을 더 많이 달고 이에 대한 죄책감도 덜 느끼며(조아라, 이정운, 2010), 적대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olak, Mitchell, & Finkelhor, 2007). 이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증가할수록 중학교 청소년들은 자신의 스트레스와 적개심을 자신보다 약한 대상이나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치환하여 표출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공격성은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공격성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인이기도 하다(김경은, 윤희미, 2012; Erdur-Baker, 2010; Kowalski & Limber,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노출경험이 많거나 피해가 클수록 피해자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곽현영, 2012; 김경은, 윤희미, 2012; 김종길, 2013; 박예슬, 2016; 박재근, 2015; 최은옥, 2015; Stueve et al., 2006). 곽현영(2012)의 연구에서 중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피해-가해경험 유무에 따른 공격성 차이를 4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학교폭력피해-가해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에서 공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폭력가해집단, 학교폭력피해집단, 일반집단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고 청소년기의 공격성 또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피해경험에서 공격성을 매개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사이버불링의 가해행동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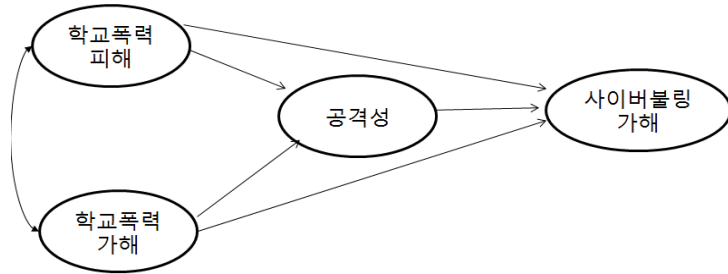
연구문제 1.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이 매개하는가?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중학생의 학교폭력피해·가해경험

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을 매개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형이다.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 앞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학생 총 9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이 이해가 어렵거나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중학생이며, 근접모집단은 J시 소재 1개 중학교, S시 소재 1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임의표집 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0일 까지 실시하여 총 639명의 자료가 배포 수집되었으며 그 중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46명을 제외한 59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

중학교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Olweus(1993)의 피해·가해 설문지(Bully/Victim Questionnaire)를 이춘재와 광금주(2000)가 번안하고 청소년대화의 광장(2007)에서 사용한 척도를 김은경(2012)에서 재구성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 따돌림, 놀림, 무시, 괴롭힘, 거짓소문, 금품갈취, 신체비하 폭언 등의 피해·가해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각 7문항씩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범주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조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등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총합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가해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예비조사에서 .866 본 조사에서 .854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중학교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Hinduja와 Patchin(2009)이 개발한 측정도구와 심진숙(2008)이 개발한 사이버 관련 비행검사 설문지, 전신현과 이성식(2010) 연구에서 사용한 휴대전화 관련 가해 설문지를 김은경(2012)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이버공간 비행 10문항, 휴대전화가해 3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총합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심각함을 나타낸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예비조사에서 .878 본 조사에서 .886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중학교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Buss와 Perry(1992)가 제작한 (Aggression Questionnaire)를 정동화(1995)가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 5문항, 적의성 4문항, 언어적 공격성 5문항, 분노 3문항 등의 4개의 하위영역 총 21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Likert 4척도를 전문가와 상의 후 Likert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공격성에 대한 Cronbach' α 예비조사에서 .910 본 조사에서 .893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찰변인들의 기초 통계치 및 상관관계 수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였다. 둘째, 잠재변인인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0.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1단계에서는 관찰변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을 분석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계수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장 간명하고 적합도 지수가 높은 모형을 최종 구조적 모형으로 선택하기 위해 χ^2 , GFI,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와 모형비교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AIC를 추가하여 평가하였다. 넷째, 최종모형을 확정된 후, 각 변인들 간에 존재하는 경로의 의미와 설명력(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을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계량	분류	n	%
성별	남자	345	58.2
	여자	248	41.8
학년	1학년	159	26.8
	2학년	175	29.5
	3학년	259	43.7
성적	상위권	95	16.0
	중상위권	153	25.8
	중위권	149	25.1
	중하위권	140	23.6
	하위권	49	8.3
	무응답	7	1.2
경제형편	매우 잘 산다	77	13.0
	대체로 잘 산다	247	41.7
	보통이다	231	39.0
	대체로 못 산다	29	4.9
	매우 못 산다	2	0.3
	무응답	7	1.2

연구대상자 중학생 총 593명 중 성별은 남학생 345명(58.2%), 여학생 248명(41.8%)으로 구성되었다. 학년은 1학년 159명(26.8%), 2학년 175명(29.5%), 3학년 259명(43.7%)으로 구성되었다. 성적은 상위권 95명(16.0%), 중상위권 153명(25.8%), 중위권 149명(25.1%), 중하위권 140명(23.6%), 하위권 49명(8.3%), 무응답 7명(1.2%)으로 나타났다. 경제형편은 매우 잘 산다 77명(13.0%), 대체로 잘 산다 247명(41.7%), 보통이다 231명(39.0%), 대체로 못 산다 29명(4.9%), 매우 못 산다 2명(0.3%), 무응답 7명(1.2%)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관찰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관찰변인들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서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에서 학교폭력 가해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하위변인 간에 상관계수가($r=.466$ $p<.01$) 정적상관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r=.340$ $p<.01$),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공격성 간의 하위변인에서($r=.319$ $p<.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와 분산팽창지수(VIF), 공차한계(Tolerance)를 검토한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80이하였으며 VIF값은 모두 2 이하였고, 공차한계 모두 .3보다 크게 나타나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관찰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잠재변인	관찰변인	a1	a2	b1	b2	b3	b4	c1	c2	d1	d2
사이버 불링 가해	a1	1									
	a2	.698**	1								
공격성	b1	.141**	.201**	1							
	b2	.140**	.200**	.495**	1						
	b3	.164**	.234**	.580**	.577**	1					
	b4	.159**	.227**	.563**	.560**	.657**	1				
학교폭력 가해	c1	.239**	.340**	.274**	.272**	.319**	.310**	1			
	c2	.183**	.261**	.210**	.209**	.246**	.238**	.562**	1		
학교폭력 피해	d1	.161**	.230**	.245**	.244**	.286**	.277**	.466**	.358**	1	
	d2	.160**	.228**	.243**	.242**	.283**	.275**	.461**	.355**	.611**	1
	M	1.19	1.10	2.65	2.31	2.13	1.91	1.25	1.17	1.33	1.16
	SD	.379	.362	.898	.834	.719	.814	.499	.408	.627	.408

주: 사이버불링가해, a1. 사이버세계, a2. 휴대폰; 공격성, b1. 신체공격성, b2. 적의성, b3. 분노, b4. 언어적공격성; 학교폭력가해, c1. 학교폭력가해1, c2 학교폭력가해2; 학교폭력피해, d1. 학교폭력피해1, d2. 학교폭력피해2.

** $p<.01$, *** $p<.001$

3. 연구모형 분석

1) 측정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에 앞서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잠재변수를 대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와 연결이 되고 비로소 잠재변수의 측정이 가능해진다(배병렬, 2014). 이에 따라 잠재변수인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적절하게 나타나는지 살펴 보기 위해 우선 학교폭력 피해경험(c1,c2), 가해경험(d1,d2) 변인들을 관측변수로 설정하고 공격

성은 신체적공격성, 적의성, 분노, 언어적공격성으로 관측변수를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사이버공간비행, 휴대폰가해 관측변수로 설정하여 그 관계의 성립 여부를 알아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검증 과정은 측정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알아보는 것으로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이 쉽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x^2 의 값 96.566($df=29, p=.000$)은 참고자료로 검토하고, GFI는 .968, TLI는 .954, CFI는 .971, RMSEA는 .063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사이버불링가해	휴대폰	.670	.074	.700
	사이버세계	1.000		.997
공격성	신체적공격성	1.104	.065	.705
	적의성	1.020	.060	.702
	분노	1.168	.059	.823
	언어적공격성	1.000		.798
학교폭력가해	학교폭력가해1	1.593	.126	.856
	학교폭력가해2	1.000		.657
학교폭력피해	학교폭력피해1	1.031	.074	.785
	학교폭력피해2	1.000		.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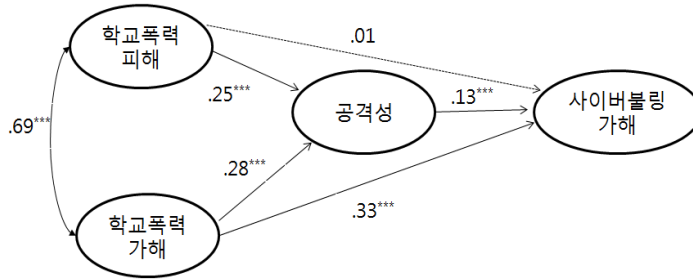
RMSEA는 절대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로 이론 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데, RMSEA가 .63(RMSEA<.8이면 적절한 적합도)으로 측정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한다(홍세희, 2000). 또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에서 요인부하량은 .5이상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각 측정변수간의 관련정도 및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7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구조모형분석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가해경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공격성 간의 구조적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 결과, χ^2 은 96.566(df=29, $p=.000$), GFI는 .968, TLI는 .954, CFI는 .971, RMSEA는 .063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구모형의 적합도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표 4와 같다. 각 변수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직접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beta=.329$ $p<.001$) 간의 직접경로는 유의미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에는 직접영향은 미치지 않으며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공격성($\beta=.247$ $p<.01$)간의 직접경로와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공격성($\beta=.283$ $p<.001$)간의 직접경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이 높을수록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격성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beta=.130$ $p<.001$)간의 직접경로는 유의미하여 중학교청소년들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잠재변수	변수간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value
	학교폭력피해 → 사이버불링가해	.011	.014	.060	.183
사이버불링 가해	학교폭력가해 → 사이버불링가해	.463	.329	.109	4.257***
	학교폭력피해 → 공격성	.297	.247	.096	3.086**
	학교폭력가해 → 공격성	.605	.283	.170	3.568***
공격성	공격성 → 사이버불링가해	.085	.130	.033	2.592*

* $p<.05$, ** $p<.01$, *** $p<.001$

4)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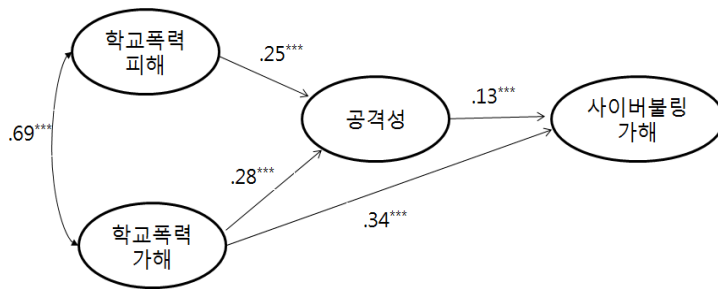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에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이는 경로모형 내 변인들 간에 이론적으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설정된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하며 통계적으로는 설정된 연구모형이 지금보다 더 간명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 연구모형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경로를 제거하여 모형의 간명화를 시도하였다.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x^2	GFI	TLI	CFI	RMSEA	AIC
연구모형(A)	96.566 ($df=29, p=.000$)	.968	.954	.971	.063	148.566
수정모형(B)	96.599 ($df=30, p=.000$)	.968	.956	.971	.061	146.599
x^2 차이검증	$x_B^2 - x_A^2 = 0.033, df_B - df_A = 1, p=.000$					

* $p<.05$, ** $p<.01$, *** $p<.001$

표 5를 보면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x^2 , GFI, TLI, CFI, RMSEA 값은 우수한 모형의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모형을 비교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는 AIC를 추가하여 비교하였다. 모형비교에서 AIC는 낮을수록 적합도가 우수하며 간명도가 높은 모형이다. 연구모형에서의 AIC는 148.566수정모형의 AIC는 146.599로 수정모형이 더 간명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의 구체적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의 직·간접효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beta=.33$ $p<.001$)의 간접효과만을 가지며, 공격성에는($\beta=.25$ $p<.001$)의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beta=.34$ $p<.001$)의 직접효과와($\beta=.36$ $p<.001$)의 간접효과를 가지며, 공격성에는($\beta=.28$ $p<.001$)의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과 사이버불링의 가해행동은($\beta=.13$ $p<.001$)의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학교폭력 피해 → 사이버불링 가해	-	.33***	.33***
학교폭력 피해 → 공격성	.25***	-	.25***
학교폭력 가해 → 사이버불링 가해	.34***	.36***	.70***
학교폭력 가해 → 공격성	.28***	-	.28***
공격성 → 사이버불링 가해	.13***	-	.13***

***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공격성을 완전매개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사이버불링에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공격성과 부분매개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경로모형에서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공격성을 완전매개 할 때 영향력이 가장 크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공격성을 부분매개 할 때가 그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이버불링의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피해경험을 예방하고 치유함과 동시에 공격성을 함께 낮출 수 있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개별 요인에 의한 영향보다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과 공격성 같은 위험요인들이 복합될 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증가됨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이 중학교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공격성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평가와 간명화 과정을 거쳐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중학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공격성을 완전매개로 중학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공격성은 다시 중학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김경은, 2012; 김경은, 최은희, 2012; 이아름 외, 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박예슬(2016)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김종길(2013)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피해 하위변인인 언어적폭력 피해경험과 신체적폭력 피해경험 중 신체적 폭력피해경험에서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학교폭력피해의 양적·질적 피해 정도와 상당한 연관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부분매개로 중학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중학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공격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전신현, 이성식, 2010; 김은경, 2012; Hinduja & Patchin, 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중학교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라는 남상인과 권남희(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의 경로들 중 학교폭력 피해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간접효과만($\beta=.33$ $p<.001$)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직접효과($\beta=.34$ $p<.001$), 간접효과($\beta=.36$ $p<.001$), 총효과($\beta=.70$ $p<.001$)으로 영향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 개입과 사전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중학교 청소년들이 공격성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실천적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중학생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공격성이 매개할 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증가한다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고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지만 공격성을 매개할 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과 공격성 그리고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하고 있는 중학교 청소년들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망을 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둘째, 실천적 측면에서 중학교 청소년들이 성장과정과 학교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공격성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를 매개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해소하고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장면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시스템과 관리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예슬(2016)과 김종길(2013)등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양적·질적 피해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후 이러한 내용을 보완할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 대상에는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다수의 중학교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한다는 일반화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가해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학교 청소년 시기는 외부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특히 학교만족수준이나 가족만족수준 그리고 경제수준에 대한 지각은 그들의 삶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연구 대상이 특정 지역이라는 표본의 한계가 있으며 중학교 청소년이라는 대상으로 한정돼 있으므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확장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고미영 (1998).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6, 51-75.
- 교육부 (2014. 11. 28.).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PP. 1-12.
- 곽현영 (2012). 학교폭력 가해-피해 유형에 따른 자아개념, 공격성 및 학교적응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은 (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과 사이버폭력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 학회지, 9(4), 51-73.
- 김경은, 윤희미 (2012).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 폭력용인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련성. 한국아동복지학, 39, 213-244.

- 김경은, 최은희 (2012).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259-283.
- 김봉섭, 이원상, 임상수 (2013).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3(1), 1-89.
- 김은경 (2012).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길 (2013).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9(1), 47-68.
- 남상인, 권남희 (2013).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23-43.
- 리승환 (2015). SNS 폭력성을 드러낸 7가지의 사건[전자매체본].
프프스스: URL: <http://ppss.kr/archives/38144>에서 검색.
- 머니투데이 (2012). “내겐 아무도 없어”... 왕따 자살 15세 소녀의 마지막 절규.
URL:<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01610130533560&outlink=1>에서 검색.
- 박예슬 (2016).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근 (2015). 학교폭력이 아동·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이론과 실제. 서울: 청람.
- 성윤숙 (2012b).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따돌림 대응방안. 2012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순회토론회.
- 신나민, 안화실 (2013).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 및 피해·가해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6(4), 1-21.
- 심진숙 (2008).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세연, 광영길 (2013). 사이버 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0(3), 65-88.
- 오탈근 (2013).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과 정서행동과의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8(12), 207-215.
- 이성식, 김현준 (2009). 휴대전화 모바일비행의 원인으로서 비행자특성과 비행기회, 그 통합적 설명. 형사정책연구, 21(1), 241-262.
- 이아름, 이윤주, 양현일 (2014). 고학년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언어폭력성이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6), 2437-2450.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정기 (2011). 청소년의 성향적 휴대폰 이용동기와 중독, 언어폭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경기 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2), 365-401.
- 이주형, 안순철 (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 미국의 법적 대응의 특징과 법제 도입을 위한 검토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1(1), 133-156.
- 이춘재, 곽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전신현, 이성식 (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집단괴롭힘 현상의 원인 모색. *청소년학연구*, 17(11), 159-181.
- 전신현, 이성식 (2011). 집단괴롭힘의 피해와 가해의 관계와 그 성별 차이. *한국피해자학회*, 19(1), 207-227.
- 정동화 (1995).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여주 (2010). Effects of Positive Affect Induction on Reducing Negative Affects among Cyberbullying Victims.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아라, 이정윤 (2010).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117-131.
- 조윤희 (2013a). 사이버불링 피해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0), 117-142.
- 조윤희 (2013b).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 실태 및 피해 유발 요인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지*, 53, 303-328.
- 최은옥 (2015).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우울·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또래·학교매착의 조절효과.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청소년대화의광장 (2007).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29.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실태와 해법” 세미나 자료집. pp. 6-14.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청소년 사이버불링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ndreou, E. (2001). Bully/victim problems and their association with coping behavior in conflictual peer interactions among school-age children. *Educational Psychology*, 21, 59-66.
- BBC (2014). Hannah Smith death: Ask.fm 'to help police inquiry'. from.

- URL: <http://www.bbc.com/news/uk-england-leicestershire-23594405>에서 검색.
- Beran, T., & Li, Q.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and school bullying. *Journal of Student Wellbeing*, 1(2), 15-33.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452-460.
- Dehue, F., Bolman, C., & Völlink, T. (2008). Cyberbullying: Youngsters' experiences and parental percep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2), 217-225.
- Dodge, K. A.,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 Processing Factor in Reactive and Proaction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46-1158.
- Dowell, E. B., Burgess, A. W., & Cavanaugh, D. J. (2009). Clustering of internet risk behaviors in a middle school student popula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79, 547-553.
- Erdur-Baker, Ö. (2010). Cyberbullying and its correlation to traditional bullying, gender and frequent and risky usage of internet-mediated communication tools. *New Media & Society*, 12(1), 109-125.
- Hinduja, S., & Patchin, J. W. (2007). Off-line consequence of online victimization: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Journal of School Violence*, 6(3), 89-112.
- Hinduja, S., & Patchin, J. W. (2008).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29, 129-156.
- Hinduja, S., & Patchin, J. W. (2012). *Bullying: Beyond the schoolyard: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yberbullying*. (조아미 외 공역. 사이버폭력). 서울: 정민사.
- Khoury-Kassabri, 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staff maltreatment of students and students violent behavior. *Child Abuse and Neglect*, 33, 914-923.
- Kowalski, R. M., & Limber, S. P. (2007). Electronic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S22-S30.
- Kowalski, R. M., Limber, S. P., & Agatston, P. W. (2008). *Cyber bullying: Bullying in the Digital Age*. Blackwell publishing. Lte: Oxford.
- Kowalski, R. M., & Limber, S. P. (2013). Psychological, physical, and academic correlates of cyberbullying and traditional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3, S13-S20.
- Kutash, S. B. (1978). "Psychoanalytic Theories of Aggression". In L. Kutash, S. B. Kutash, & L. B. Schlesinger (Eds.). *Violence* (pp. 7-28). San Francisco: Jossy-Bass Publishers.
- Juvonen, J., & Gross, E. F. (2008). Extending the school grounds? - Bullying experiences in cyberspace. *Journal of School Health*, 78(9), 496-506.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Litwiller, B. J., & Brausch, A. M. (2013). Cyber bullying and physical bullying in adolescent suicide: The role of violent behavior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 675-684.
- Mishna, F., Saini, M., & Solomon, S. (2009). Ongoing and online: Children and youth's perceptions of cyber bully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2), 1222-1228.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 Piquero, N. L., & Sealock, M. D. (2000). Generalizing general strain theory: An examination of an offending population. *Justice Quarterly*, 17(3), 449-484.
- Slonje, R., & Smith, P. K. (2008). Cyberbullying: Another main type of bullying?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9, 147-154.
- Snell, P. A., & Englander, E. (2010).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behaviors among girls: Applying research findings in the field. *Journal of Social Sciences*, 6(4), 510-514.
- Steinmetz, S. K. (1977). *The Cycle of Violence: Assertive, Aggressive, and Abusive Family Interaction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Stueve, A., Dash, K., O'Donnell, L., Tehranifar, P., Wilson-Simmons, R., Slaby, R., & Link, B. (2006). Rethinking the bystander role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Health Promotion Practice*, 7(1), 117-124.
- Vaughn, M. G., & Fu, G. (2010). Psychiatric Correlates of Bullying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from a National Sample. *Psychiatric Quarterly*, 81(3), 183-195.
- Wolak, J. D., Mitchell, K. J., & Finkelhor, D. (2007). Does online harassment constitute bullying? An exploration of online harassment by known peers and online-only contac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51-58.
- Williams, K. D., Cheung, C. K. T.,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748-762.
- Ybarra, M. L., & Mitchell, K. J. (2007). Prevalence and frequency of internet harassment, instigation: Implications for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189-195.
- YTN (2011). 대구에서 친구들 괴롭힘에 중학생 투신.
URL: http://www.ytn.co.kr/_ln/0115_201112221509487259에서 검색.

[원고접수일: 2016. 03. 31. / 수정원고접수일: 2016. 06. 01. / 게재결정일: 2016. 11. 04.]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Offend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Young-Seok Yang Se-Young Ahn Bo-Young Choi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offend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For the research, a total of 593 middle school students responded to survey packets including measure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school violence offending experience,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d aggression.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nalysis and bootstrapping to verify the significance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paths between the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ggress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Second, aggress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offending experience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ts implication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in the discussion section.

Key words: school violence offend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cyberbullying perpetration, aggression